

2025년

한사람으로 살리는교회

(사 60:22)

송학대 향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와 성전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 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8장 20절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송학대교회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20길 46-3(노량진동) / 전화 : 817-9691~2, 팩스 : 817-9693 / 발행인 : 박병주 / 고문 : 방호성 / 편집부장 : 최종빈 / 홈페이지 : www.shdpc.org



말씀의 샘 믿음의 선택1.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창세기 13:14-18)



위임목사 박 병 주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선택은 오랫동안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합니다. 이 시간 인생의 갈림길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 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두려웠던 바로 왕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바로는 신의 진노를 샀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며 많은 짐승과 금과 은을 화목의 선물로 줍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잘한 것이 없었는데 아내를 되찾고 많은 재산까지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닌 조카 롯도 가족들이 늘어나다 보니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정된 땅에서 많은 가축을 키우다 보니 물과 풀을 확보하기 위해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싸움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공 장소에서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만 사는 땅이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와 함께 살고 또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울 때 세상은 그 싸움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우리만 우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늘 함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좇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둘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중요한 선택과 직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 그 선택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을 보고 즉시 마음을 정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 거기에 자리를 편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과연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선택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물으면 내 질문에 반응하실 거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선택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길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선택권을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길을 자기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린 이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는데, 왜 헤브론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은 걸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원하는

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사용한 문장과 비슷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며 자신을 매몰차게 떠날 때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떠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거민들은 대부분 헤브론을 신성시했습니다. 또한 **헤브론이라는 지명에는 연합, 동맹, 친밀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며, 하나님과의 연합, 동맹, 친밀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결과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큰 결과의 차이를 남깁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갈림길에 섰고 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단 하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몹시 커서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그 땅에 임했습니다. 그 때 롯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존재로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

2월 목회계획

- 2 청년부 캄보디아 선교
- 9 2.6(목) - 2.12(수)
- 16
- 23 3.1절 기념예배
- 2.26(수) 수요일예배(여전도회협의회주관)

목차

- 1면 말씀의 샘 / 박병주 위임목사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 2면 리모델링 공청회
두드림 동산 소식
태국 장년 단기선교 답사
성시 / 이해인 / 나의 예수를
- 3면 교역자 칼럼 / 김형준 전도사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녹색선교회 / 안은주 권사
지구를 위한 행동 실천 10월 모임
- 4면 해외선교 / 강정표 • 유미라 선교사
HOPE CAMBODIA
- 5면 청지기 / 이상열 장로
고통대신 영광으로
칭찬합니다
성품학교 선생님들을 칭찬합니다.
- 6면 70주년기념 봉당 1층 리모델링
준비위원회 사업보고-(3)
벤엘유치원 1월 이야기
- 7면 응달샘 / 이규로 은퇴장로
가슴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법
헌신예배 / 여전도협의회소식
- 8면 교회 각 기관소식 / 교역자 부임
신간 신앙도서 안내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선교

'뜨겁게 사랑하라'

2월6일(목)~12일(수)
캄보디아 껌벤 엘선교센터



송학대 향기

송학대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교회로 故 방관덕 원로목사에 이어 정동락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한 화평한 교회입니다. 2017년을 맞아 박병주 목사를 위임목사로 모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입니다. 1954년 세워진 송학대교회는 노량진 지역속에 깊이 뿌리내려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인가 1호인 벤엘유치원을 통해 유아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은송대학을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송학대교회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전도복발 수료식 중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행6:7)

하나님의 이야기로 걸어온 교회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교회

His story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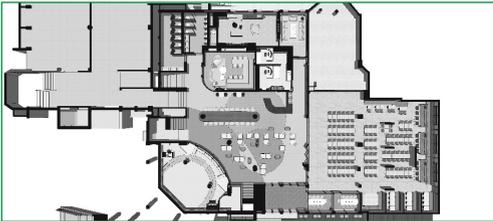
리모델링 공청회

1월 19일 오후1시반



본당 1층 리모델링 공사를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리모델링 목적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본당1층의 변화된 모습을 영상을 통해 시연하였다.

교회는 1972년 본 예배당이 지어진 후 50년이 되어 시설이 많이 낙후 되었다. 지역사회가 대 변혁을 준비중인 가운데 교회는 그동안 선배들이 땀과 눈물과 기도로 지어 물려준 교회에서 지내온것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본당1층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제직들과 성도들이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 상황을 듣고 나름 제안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당 2층은 예배의 공간으로 1층은 교인들의 교제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교회는 2월2일 주일 비전 선포식을 통하여 본격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편집부-



태국 장년 단기선교 답사

1월 5일 주일 저녁 출발하여 9일(목)까지



금년에 실시될 태국 장년단기선교를 위하여 현지답사 차 박병주 담임목사와 이삼열 해외선교부장이 함께 다녀 왔다. 이번 답사는 당회에서 그동안 청년부 단기선교외에 장년들도 해외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현장을 접하고 선교현장을 위한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년을 위한 선

교사명의 도전이 되고자 정책당회에서 결정된 사업이다. 1월5일 주일 저녁 출발하여 9일(목)까지 일정으로 돌아보았다. 먼저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시는 본 교단 선교사의 사역지를 돌아보고, 이어 방콕으로 이동하여 본교회가 지원하는 방콕 뉴비전 교회를 다녀왔다. 뉴비전 교회 김진규,김은옥 선교사는 태국현지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펼치고 있다. 교회는 이번 장년 단기선교를 준비하며 일정은 8월 15일부터 단기 선교기간을 정하였다. 장년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편집부-



두드림 동산 소식

-겨울 소식-

송학대교회의 영성센터 두드림 동산(위원장 이현주장로)에 겨울풍경은 흰 눈이 소복히 쌓인 설국입니다.

동절기 성수기를 맞이하여 연일 수련원을 찾는 교회와 단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중 고등부 학생들이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각종 수련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1월은 다음교회 중등부와 순복음 부천교회 청년들이 두드림 동산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깊어가는 겨울에 찬양과 기도소리로 밤은 깊어 갑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인 두드림 영성센터는 세종시와 포천을 잇는 고속 도로가 개통됨으로 접근성이 높아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두드림 지기로 박보인 안수집사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편집부-



성시

나의 예수를

- 이해인 -

삶에 지치고 아픈 사람들이
특하면 내게 와서 묻는다.
예수가 어디 계시냐고 찾아도 아니 보인다고
오랜 세월 예수를 사랑하면서도
시원한 답을 줄 수 없어 답답한 나는 목이 메인다
예수의 마음이 닿는 마음마다 눈물을 흘렸으며
예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의 불길이 타올랐음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걸까
그는 오늘도 소리 없이 움직이는 순례자
멈추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랑의 집
나의 예수를 어떻게 설명할까
말보다 강한 사랑의 삶을
나는 어떻게 보여주어 예수를 믿게 할까

-영혼의 울림 한국의 기독교 명시에서 발취-

예배안내

집 회 명	시 간	집 회 명	시 간	집 회 명	시 간
장년 주일 낮	1부 주 일 7:00	구역장영성모임	화요일 10:00	초 등 부	주 일 11:00
	2부 주 일 9:00	새벽기도회	새 벽 5:00	중 등 부	주 일 11:00
	3부 주 일 11:20	영 아 부	주 일 11:30	고 등 부	주 일 10:30
	4부 주 일 13:20	유 아 부	주 일 11:30	은송대학부	수요일 10:00
오후 찬양	주 일 15:00	유 치 부	주 일 11:30	심야기도회	금요일 20:00
수요 예배	낮:11:00 저녁:19:30	유 년 부	주 일 11:00	새 가 족 부	주 일 10:30

남·여 선교회 안내

남선교회 가입안내

기 관	대 상
바 나 바 회	50세 이하
안 드 레 회	51세 ~ 60세
야 고 보 회	61세 ~ 70세
베 드 로 회	71세 이상

여전도회 가입안내

기 관	대 상
에 스 더 회	57세 이하
드 보 라 회	58세 ~ 62세
한 나 회	63세 ~ 67세
사 라 회	68세 ~ 72세
안 나 회	73세 이상

교역자 칼럼 김형준 전도사



초등부 김형준 전도사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다음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 '배', '눈', '김'

위 단어 유형을 사전에서는 “동음이의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단어의 부류로 '갈', '순' 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를 “다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의 특징이라면 위 단어만 가지고는 정확한 뜻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의 단어를 사용하여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문장, 맥락 속에서 위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 위에 배가 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문득 삶도 이와 비슷함을 느낍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배', '눈', '김'처럼 당장 나타난 현상만 보고 바로 판단을 내린다면 자칫 큰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어떤 사람의 현재 행동이나 모습만 보고 즉시 그 의미나 뜻을 판단 내릴 때가 있었음을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전후 상황이나 자초지종을 살핀 후에는 처음 내린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삶의 맥락을 듣고 현재 나타난 상황이나 행동을 위치시킬 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해와 공감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조용한 지하철에 있었습니다. 한 정거장에서 중년 남자와 그의 어린 자녀들이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은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떠들고 물건을 팽개치고, 어떤 사람의 신문을 잡아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인 그 남자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짜증이 나고 참을 수 없어서 “이보시오. 저 아이들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애들을 조용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힘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도 뭔가 해 봐야겠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좀 전 올라왔던 짜증이 없어지고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안됐군요.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 영화로 개봉했던 『82년생 김지영』 내용 중 한 에피소드입니다.

워킹맘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김지영이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커피숍에 들어갑니다. 김지영은 우는 아이를 달래다가 실수로 주문한 커피를 바닥에 쏟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서 뒤쪽 줄에서 있던 젊은 손님 한 무리가 제법 들릴만한 소리로 진상이라고 하며 김지영 흉을 봅니다. 이 소리를 들은 김지영은 화가 치밀어 올라 흉을 본 젊은 손님 무리에게 가서 화를 내게 됩니다.

바르고 깊은 이해는 삶에 맥락과 맞아 아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에 이해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벌어지는 상황이나 사건, 그리고 그것에 관계된 사람에게 반드시 맥락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지영’이 커피를 쏟았을 때(물론 타인이 그녀의 삶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옆에 우는 아기가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어도 그녀의 난처한 상황을 조금은 더 이해했을 것이며, 흉을 보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워킹맘이었던 한 여성을 분노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른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점을 보듯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즉시 판단을 내려 상황을 때려 맞추는 것일까요? 맥락과 삶의 이야기,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임을 생각해보고 쉽게 판단 내리는 것을 멈추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이해와 통찰을 필요로 합니다. 난무하는 낱선 판단과 정죄 앞에 사람들이 상처 입고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어떤 상황의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배', '눈', '김'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즉각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문맥 즉 삶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사랑'과 '공활'의 정신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

녹색선교회 안은주 권사

지구를 위한 행동 실천 10월 모임 “채식을 합시다” 참여하며

녹색선교회 회원들이 지구를 위한 행동 10월의 실천 “채식을 합시다”에 참여하기 위해 10월의 마지막 날, 신촌의 “논지당”이라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방향감각 없는 길치이지만 친절한 네이버 지도를 보며 찾아갔습니다. 작고도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1부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문선경권사님이 전해주시는 생명밥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면서 놓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생명밥상을 위한 12가지의 수칙〉을 소개합니다.

1.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애용한다.
2. 제철음식을 먹는다.
3. 가공식품을 삼간다.
4. 외식을 최대한 줄인다.
5. 계획 구매하여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6. 단순하게 조리하여 먹을만큼 담아낸다.
7. 반찬수를 줄여 간소한 상을 차린다.
8. 육식보다 곡식과 채소를 즐긴다.

9. 생명주심에 감사하며, 천천히 먹는다.
10. 신음하는 이웃을 생각하며 먹는다.
11.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
12. 최소한으로 배출된 음식쓰레기는 재활용한다.

우리 가정의 밥상을 책임지는 주부로서, 12가지 내용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12가지를 모두 지킬 수는 없더라도 이제부터는 몇 가지만이라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부는 함께 채식밥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자기 소개도 하고, 밥상기도문을 한목소리로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박하고도 맛난 채식밥상(도토리묵, 콩나물, 가지나물, 호박나물, 야채샐러드, 비지찌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함께 드린 〈밥상기도문〉도 나눴습니다.

햇빛과 물과 바람, 벌과 나비



착한 농부님들의 땅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낸 이 밥을 천천히 씹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하늘을 모시듯 먹겠습니다. 이 밥이 우리에게 먹혀 우리를 살리듯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채식밥을 함께 먹으니 나의 오염된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10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번 기사는, 작년가를 원고인데, 기사가 햇빛과 물과 바람, 벌과 나비



HOPE CAMBODIA

강정표 · 유미라 선교사

살롱!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2024년 12월이 되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연말 즈음에 조국에서 어마 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서 있어야 나라도 바로 서고 교회도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나라와 교회가 어찌 이리도 힘이 없고 권위가 없어졌는지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믿음을 지키며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이 올해 마지막 선교편지입니다. 읽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앙 훈련 및 수영장 방문 >

10월에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 훈련을 하였습니다. 참석한 아이들은 평일 오전, 오후에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주말에도 비교적 예배 참석에 열심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님의 뜻으로 공장이나 일을 찾아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신앙 훈련을 강하게 하고자 합니다.

훈련 시간을 마친 후에 격려하는 의미로 함께 수영장에 가서 점심 식사도 하고 마음껏 수영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성장이 더디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도 있고 해서 지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써 바로 서도록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센터 앞 도로 보수 >



저희 센터 앞이 흙길이라 비가 올 때마다 구덩이 파여 통행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또 트럭들이 오가면서 더욱 구덩이가 깊어지고 흙먼지가 날려서 온 센터가 흙먼지로 자욱하게 쌓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갈을 주문하여 센터 앞쪽으로 자갈 포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와도 차량이 평안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되었고 흙먼지도 훨씬 줄어들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 추수 감사절 예배 >



올해에도 11월 첫 주일을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캄보디아는 사실 많으면 3 모작을 할 수 있는 기후라서 추수하는 계절로 지켜서 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 추수 감사절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비롯하여 장년에 이르기까지 상징적 의미로 채소와 야채 그리고 수확물 등을 가져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 학습식 >



14세 이상 학생들 중에서 올해 4명의 학생들이 학습식을 받았습니다. 완네이, 끄다이, 파엔, 농. 이 네 학생은 성실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 여년 후에 세례식을 받을 예정인데 이들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서 기쁨 가운데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예배 >



12월에 성탄 주일에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어린이, 어른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드라마, 찬양, 악기 연주를 통해 부모님들의 참여를 높이고 예배 시간에 복음 전도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였음.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에 부모 초청을 하여 위와 같은 복음 전도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트라우마 마을 사역 시작 >

저희 센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스레이 빠 자매의 동네(품 트라우)에서 철수한 선교사의 사역지를 이어받아서 지난 11월부터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전 선교사님 이 어린이 예배를 하길 원했었으나 여력이 되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한국으로 철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빠 자매가 마을 어린이들도 복음을 듣고 예배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었고 저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빠 자매의 집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 몇 분이 따로 주일에 모여 성경을 읽고 모이는 형편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어른을 위한 예배도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사역을 위해서는 더욱 기도와 후원이 요청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말론적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강정표 유미라 선교사 올립니다. 🙏

<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 1) 검놈벨센터에서 헌신할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 2) 검놈 마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주 앞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 3) 어린이들의 심령에 말씀이 잘 심어지고 믿음이 잘 자라게 하소서.
- 4) 청소년들이 예배에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 5) 새 신자들이 예배에 기쁨 마음으로 참석하고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소서.
- 6) 새로 시작된 트라우 마을에서의 어린이 사역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 7) 신자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 8) 신학교 4학년인 파는 형제가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 9) 교사인 스레이 빠 자매가 신실한 제자로서 계속 성장하게 하소서.
- 10) 센터 관리가 잘 되게 하시고 외진 곳에 있으므로 안전을 지켜주소서.
- 11) 한국의 가족들과 형제들이 모두 강건하며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 12)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이 후대로 이어지게 하시며 이웃 사랑의 실천이 더욱 크게 일어나게 하소서.



칭지기 이삼열 장로

고통대신 영광으로



이삼열 장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마취야 말로 현대의학의 발전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초, 당시 수술실은 고문실과 같았다. 아편과 술 그리고 환자의 귀 옆에서 통증을 잊게 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소음 발생에도 불구하고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환

자들에게 수술이 진행되었고, 수술의 스피드는 필수였다. 예를 들어 런던의 한 외과의사는 몇 초 만에 다리를 절단할 수 있다고 자랑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한 환자의 다리 절단술에서 환자의 다리를 잡고 있던 조수의 손가락 두개를 같이 절단하는 실수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1844년 12월 10일, 미국 하트포드 주민들은 전 의과 대학생이었던 가드너 콜튼의 '웃음 가스 오락회(laughing gas entertainment)'에 초대되었다. 콜튼은 웃음 가스 또는 아산화질소(N2O)를 의과대학 시절 경험했고, 이 가스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날 밤, 모임에 참석한 29세의 치과의사인 호레이스 웰스(1815~1848)는 가스를 마신 사람이 넘어

지고 의자에 다리를 부딪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다.

그는 이 가스를 이용하여 통증없이 발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놀랍게도 다음날, 웰스는 콜튼을 초대하여 본인에게 아산화질소를 주입하게 한 후, 그의 조수로 하여금 웰스의 사랑니를 뽑게 하였다.

발치 후, 그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밖에는 느끼지 못 했다고 말하며, 이 시도가 의학적 마취의 성공적인 첫 번째 시도라고 선언하였다. 웰스는 아산화질소를 치료치료에 적용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본인이 무통치료의 창시자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하였다.

마침내 웰스는 보스턴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수많은 청중 앞에서 아산화질소를 이용하여 발치 시연을 하게 된다. 계단식 강당에서 긴장한 채 서 있던 조급한 치과 의사는 불행히도 아산화가스 자루를 너무 일찍 환자에게 물렸고, 이로 인해 마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환자가 고통스러운 듯 울부짖는 바람에 발치 시연은 중단되었고, 웰스는 청중들로부터 조롱과 야유를 받게 된다. 보스턴에서의 실패로 인해 웰스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치과 진료를 중단하게 되었다.

웰스와 잠깐 동업을 했던 윌리엄 토마스 모튼(1819~1868)은, 에테르 흡입요법을 추가하여 통증없이 발치하는데 성공한다. 모튼의 다음 행동은 존 콜린스 워렌(1778~1856)교수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그

는 1815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버드 대학의 제 2대 외과교수가 된 사람이다.

1846년 68세 었던 워렌은 교수직에서 물러난 지 1년이 채 안되었다. 그는 윌리엄 모튼의 마취 공개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모튼은 약속된 날 아침 15분 늦게, 기다리기를 포기한 워렌이 혼자 수술을 막 시작하려는 수술실에 간신히 도착했다.

계단식 강당은 병원 직원들과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환자는 왼쪽 턱 모서리에 혈관 종양이 있는 소모병 환자였다. 실질적으로 무통 수술은 25분 동안 지속되었고, 수술을 마친 후 워렌 교수는 외과 의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참석한 청중들에게 알렸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죽도록 고생한 사람과 그 열매를 얻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게 된다. 그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무통 치료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호레이스 웰스의 기념 비석에는 'There shall be no pain and I awaken to Glory(고통은 없을 것이고, 나는 영광에 깨어날 것이다)'라고 새겨져 있다고 한다. 🌱

편집자 주: 위 글은 한국경제신문 한경에세이에 실린 칼럼을 실습니다.

이삼열장로는 한림대학교 외과 명예교수이며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성품학교 선생님들을 칭찬합니다.



아니하리라."(잠언 22장 6절) 어린이들에게 어려서 부터 '마땅히 갖추어야 할 좋은 성품'들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늘 연구하시고 또 좋은 가르침과 꾸준한 훈련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선생님들!

성품학교 선생님 (이혜선권사님, 조건희, 백소은, 박한아집사님) 들을 칭찬합니다.

저희 자녀가 초등학교 때 시작된 성품 수업이 어느새 10여 년이 훌쩍 넘어 송학대교회에 든든히 자리 잡은 어린이 성품 학교!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하나의 성품이 끝날 때마다 '페스티벌'을 준비하셔서 아이들에게 흥미와 즐거움까지 주시는 멋진 네 분의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송학대교회 유, 초등부 어린이들은 그것을 몸에 익히고 나아가며 교회와 가정, 부모와 교사, 아이들이 함께 올바른 성품의 씨앗을 심어 평생에 걸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서 더 나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며 윤리적 판단력과 공감 능력뿐 아니라 멋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

-전미순 권사



70주년기념 본당 1층 리모델링 준비위원회 사업보고-(3)



하나님의 은혜로 십시일반 벽돌한장 한 장 쌓아 건축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땀과 기도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 환경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세대와 교회를 찾는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사업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1970년대 성도들은 땀과 눈물의 기도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음세대를 위하여 아름답고 세련된 공간을 물려줄 때입니다. 지역이 고층 아파트로 수려한 시설이 놓여질 때 교회는 쾌적하고 친밀한 공간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실. 새신자실.남.녀 화장실 서무실. 영유아교실이 구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공청회가 두 차례 더 있겠습니다.

-리모델링 위원회-



송학대교회는 창립10주년때인 1964년 화강암으로 지어진 돌예배당을 헌당했으며 창립 20주년을 맞으며 지금의 예배당을 지어 봉헌하였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에서 제일 먼저 부채꼴 모양의 본당을 건축하여 한국교회 건축에 기념비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72년도 한국전쟁이 끝난지 20년밖에 안된 시기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환경에 익숙하여 왔지만 처음 교회를 찾은 분들은 교회가 미로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본당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합니다.

12월에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과했습니다. 2월첫주 리모델링에 대한 비전 선포식이 있을 계획입니다.

교회는 일층과 이층으로 나누어 볼 때 2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며 1층은 성도의 교제를 통한 친밀감의 공간입니다.

성도들이 머무르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기꺼이 참여하여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1층에는 식당과 카페, 목양



벤엘유치원 소식



벤엘유치원 1월 이야기



차가운 바람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의 한가운데 와 있음을 실감합니다.

매일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하며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쁩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유치원은 더 따듯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1월 13일(월) 벤엘유치원은 개



학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유아들은 친구들과 선생님께 스케이트 타던 경험, 눈썰매와 눈놀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던 소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도란도란 이야기의 꽃을 피웠습니다.

1월 15일(수)은 성군관대 새천년홀에서 하는 뮤지컬 '100층짜리 집'을 관람하였습니다. 책으로만 만났던 이야기가 기발한 상상력의 이머시브 뮤지컬로 만들어져 새로움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월 17일(금) 벤엘유치원(원장 임지연)의 큰 형님들인 7세 금빛, 은빛반 유아들은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의 '원더박스' 테마파크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였던 반짝반짝 빛나는 관람차와 개구리점프, 범퍼카, 회전목마 등등 유치원에서의 마지막 졸업여행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벤엘유치원 교직원들은 다채로운 활동들을 이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포터 이성자-



응달샘 이규로 은퇴장로

가슴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법



이규로 은퇴장로

누구든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그 죽음은 큰 고통이 되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지금이란 말인가? 도대체 왜? 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절규하며 고통으로 가득찬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기가 참으로 난감하다.

어쭙잖은 위로의 말이 오히려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참으로 어렵다. 진정한 위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형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심장병 전문 병동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누워있었다.

튜브와 전선들이 형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목사인 그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종종 만나왔다. 그때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말들, 완벽한 성서의 귀절들, 희망을 주는 문장들을 들려주곤 했다.

하지만 직접 당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 힘든 기간 동안 형수님과 그는 희망과 포기사이를 오락가락 했다. 방문객들은 우리를 염려해주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문을 열고 들어와 말하면서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우리와 함께 형의 병상침대 옆에 서서 형을 바라보며 오래 동안 서 있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갑자기 감정을 수습하고 그가 말했다. "아, 정말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그는 형수를 껴안더니 돌아서서 나와 악수를 했다.

그는 필요한 것보다 몇 초 정도 더 내손

을 잡고 있더니 평소보다 더 손에 힘을 주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그 눈을 적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그 후 일주일 뒤 형은 숨을 거두었다.

이제 여러 해가 흘렀지만 난 아직도 그 형의 친구 방문객을 기억한다. 그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가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나누었는가를 결코 잊지 않는다.

조용히 진심으로 꾸밈없이 그는 단 몇 마디 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한편의 책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이 이야기처럼 진정한 위로는 어쭙잖은 말보다는 가슴으로 진심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 몇 해 전 어느 분이 가족들을 사고로 잃은 슬픔을 당했을 때, 어떤 분이 위로한다고 메모지에 글을 써서 전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기도해보니 너의 죄 때문에 ○○가 죽었다"고 써 있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불난데 부채질하는,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하시며 살려주셨다.

'가슴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여섯 살밖에 안된 수지라는 어린아이가 "엄마, 지금 뭐해?"라고 물었다. 엄마는 "응, 이웃집 스미스 아줌마에게 갖다 주려고 볶음밥을 만드는 중이야" "왜?" "왜냐하면, 지금 스미스 아줌마가 매우 슬프기 때문이란다."

얼마 전에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를 입

었거든 그래서 얼마동안 우리가 돌봐 드려야만 해" "왜, 엄마?" "수지야, 누군가 아주 슬플 때는 음식을 만든다거나, 집안 청소 같은 일들을 하기 어려워진다. 스미스 아줌마는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스미스 아줌마는 다시는 딸을 볼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껴안을 수도 없고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수지야, 너 매우 똑똑한 아이지 그러니 너도 스미스 아줌마에게 도움이 되어줄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거야." 어린 수지는 엄마의 말에 깊이 생각하더니, 얼마 뒤 이웃 스미스 아줌마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한참 지나서 스미스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안녕, 수지" 수지는 스미스 아줌마가 평소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스미스 아줌마는 울고 있었던 듯했다. 눈이 부어 있고 눈물에 젖어 있었다. 아줌마가 물었다. "무슨 일이니, 수지야" 수지는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가 났고 그래서 슬프시대요" 그리고는 부끄러워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일회용반창고가 들려져 있었다. "가슴에 난 상처에 이걸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스미스 아줌마는 갑자기 목이 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수지를 껴안았

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 줄 거야." 그리고 그녀는 수지의 순수한 위로와 행동을 받아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게에 가서 동근 우리 안에 작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열쇠고리 하나를 사서 수지가 준 일회용 밴드를 그 유리 안에 넣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가슴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마음의 치료에는 시간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열쇠고리는 그녀에게 치료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가 딸과 함께 나누 기쁨과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도와주었다." 왜 우리는 수지와 같은 순수한 행동을 하지 못할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 우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넘어 저주와 악담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만이라도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따뜻함을 이웃과 나누어야겠다. 🌱



헌신예배 / 여전도 협의회소식

▶ 제직헌신예배



1월 첫째 주일(1/5) 오후 찬양 예배 시 제직 헌신예배를 드렸다

주향기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예배를 시작하여 이동범 목사님의 인도로 방효성 장로(제직회 부회장)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봉독 후에 이상범(아가페 담임)목사님께서 "사랑이 이긴다(고전13:1-7)"이라는 제

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어 제직자 헌신 서약식(대표: 정원민 안수집사) 후 각 부 위원장 및 제직부서장의 특송 순서가 있었다. 박병주 담임 목사님의 교회소식에 이어 다같이 303장 찬송을 부른 후 이상범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여전도 협의회소식 (정성운 권사) 서울 남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제 45회 임원단 수련회

2025년도 임원단 수련회가 16일(목요일) 11:00에 벨엘교회에서 있었다.



협의회 회장(정성운 권사)와 본 교회 각 여전도회 임원단 22명이 참석하였다.

▶ 여전도회연합헌신예배



1월 셋째주일 (1/19) 오후 찬양예배 시 여전도회 연합 헌신예배를 드렸다.

주향기 찬양단의 찬양 인도로 예배를 시

작하여 정성운 권사(협의회 회장)의 인도와 정덕이 은퇴권사(안나회 회장)의 기도 이어 인도자의 성경봉독, 여전도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던 후 김혜경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여인, 평화의 목소리(사무엘하 20:14~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찬송가 50장을 다같이 찬양한 후 변동수 은퇴권사(사라회 회장)의 헌금기도가 이어졌다.

박병주 담임목사님께서 교회소식 전한 후 다같이 찬송가 455장을 부른 다음 김혜경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경임 기자-



찬양부 소식

● 찬양부 (조광민 장로)

1. 1월 셋째주에 조광민 장로의 사회로 2025년 첫 찬양위원회가 열렸다. 찬양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오후 1시에 각 찬양대 대장, 지휘자, 총무 등이 함께 모여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과 관련된 대소사를 협의하는 협의체이다.

• 위원장 : 조광민 장로 • 간사 : 김정환 안수집사 • 회계 : 최옥수 집사

2. 각 찬양대는 2025년 신입 찬양대원을 모집한다. 찬양대를 원하는 성도는 서무실 및 각 교구별 담당 목사님과 각 찬양대 총무에게 신청 바란다.

2. 2025년 찬양대장

• 시온 : 김양배 안수집사 • 기드온 : 이경호 안수집사 • 레위 : 정양호 안수집사 • 호산나 : 이삼열 장로 • 갈릴리 : 박혜숙 권사 • 주사랑양상블 : 정원민 안수집사 • 주향기 : 이승구 안수집사 • 브니엘 : 이순애 권사

*2025년도 각 찬양대 절기찬양 및 예배 담당

1) 절기찬양 : 레위(부활절), 시온(추수감사절), 기드온(성탄절)

2) 오후예배 담당(호산나)

첫째주 : 기드온(1,4,7,10월), 시온(2,5,8,11월), 레위(3,6,9,12월)

3) 수요일 오전예배 : 갈릴리 찬양대

*찬양부 소식이나 찬양에 관한 소식은 각 총무께서 전신 집사에게 매월 4째주 화요일까지 통보 바란다. (송학대항기 단복방)

-전성 기자 메일 : yeilkids@hanmail.net

● 레위 찬양대 (정양호 안수집사)



1. 대장: 정양호, 지휘: 최은선, 피아노: 하영주, 오르간: 윤나리, 총무: 지성한, 부총무: 박은정, 서기 오연주, 회계: 김진희, 악보: 지성한, 성의: 신영남, SOP 설승민, ALT 최정심, TEN 박현, BASS 신대일

2. 1월 둘째주에 생일맞은 대원 축하식이 있었다.

3. 해외 장기출장 : TEN 김대호

4. 레위 찬양대는 3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활절 절기찬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위하여 기도 바란다.

5. 찬양대원을 수시 모집한다. 문의 지성한 총무

● 기드온 찬양대 (이경호 안수집사)

1. 대장: 이경호, 지휘: 이현진, 피아노: 황선명, 오르간: 이인영, 총무: 박민영, 부총무: 이승훈, 회계: 권미진, 서기: 강준혁

2. 1월 5일 오후 찬양예배에서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3. 1월 26일 찬양부 헌신예배를 주관하여 연합찬양곡 "찬양의 밀알" 곡으로 영광올려드렸다.

4. 기드온 찬양대는 2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다.

5. 찬양대원 모집 : 서무실이나 박민영 총무

● 시온찬양대 (김양배 안수집사)

1. 대장 : 김양배, 지휘:방대성, 피아노 : 김수연, 오르간 : 김현영, 총무 : 김경임, 부총무 : 김은아, 서기 : 홍윤덕, 회계 : 이은자

2. 시온 찬양대는 2월 1일 오후 5시에 신년회를 열어 202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찬양대가 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3. 시온 찬양대는 1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적 육적 성장과 찬양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와 지원을 바란다.

4. 찬양대원 모집(1부예배 찬양담당) : 김양배 대장께 문의

● 호산나 찬양대 (이삼열 장로)



1. 임원 명단

대장 : 이삼열 지휘 : 김선정, 반주 : 김세정

2. 호산나 찬양대는 김선정 지휘자의 지휘로 오후 찬양예배를 담당하고 있다. 위하여 기도 바란다.

3. 찬양대원 모집 : 이삼열 대장 또는 서무실에 문의

● 갈릴리 찬양대 (박혜숙 권사)

1. 대장 : 박혜숙, 지휘 : 장영신, 반주 : 김은선, 총무 : 김진희, 서기 : 김진숙, 회계 : 남소영

2. 1월 15일 수요일 오전예배에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로 영광을 돌렸다.

3. 갈릴리 찬양대는 수요일 오전예배를 담당하며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님을 기다린다.

4. 찬양대원 모집 : 김진희 총무께 문의

● 주사랑 양상블 (정원민 안수집사)

1. 악장 : 김정아 총무 :곽세희

2. 주사랑 양상블은 3부 예배에 레위 찬양대와 함께 예배를 돕고 있는 관현악 양상블이다.

•바이올린 : 김정아, 신하은, 박우정, 김상연, 곽세희 비올라 : 안은지 첼로 : 정지윤

3. 렛슨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플룻, 트럼펫, 클라리넷, 피아노 등 초보 렛슨 환영

4. 사임 : 김명준 안수집사

-송학대항기 찬양부 기자 전 성

교회설경



2025 꿈마을 교회학교 2월 이야기

영유아부

공과활동, 대그룹활동, 아기축복 기도회, 자녀 축복 기도문 매주 발송, 촉감활동

유치부

반별활동, 대그룹활동, 생일축하, 에어바운스

유년부

누편편만, 생일파티, 반별공과공부, 달달카, 봄맞이성경학교

초등부

1, 2월 생일파티, 반별 모임, 반별 모임, 공동체 활동, 봄맞이 성경학교(3.8-9, 토-주)

중등부

겨울수련회(2.7-8), 섬김이 MT, 씨앗모임, 개별심방, 중고등부 연합예배(2.9), 생일축하, 성경모임(예배 후 모임)

고등부

생일축하, 임원/찬양팀 리더 MT, 샘모임(공과), 개별 심방, 겨울 수련회(2.21-22), 중고등부 연합예배(2.9)

-리포터 김영빈 안수집사-

플러스부서

- [개강] 어린이 성품훈련 : 1.12-3.23(주일오후 1:30)

신앙도서 신간 안내

“A.B 올커터는 기대하고 펼쳐서 이익을 얻고 덮는 책이 '양서'이다. 라고 했다. 양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명성을 더해온 책이다. 이렇게 세월의 명성을 얻은 고전은 읽는 이에게 크나큰 이익을 안겨준다. 그러나 고전을 읽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 법이다. 어렵게 독파한 책이 오래도록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ACTIVE SENIOR(액티브 시니어)

- 인생 후반이 이렇게 찬란하다고 -

박수용 저/ 두란노 /14,000원

이 책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더욱 멋지게 쓰임 받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담겨있다. 건전한 삶의 핵심이 되는 영혼 육 관리, 관계, 재정, 일상 그리고 인생 후반부를 맞이한 크리스천의 영적태도와 삶의 습관까지 성경을 기초로 저자의 경험으로 풀어내고 있다. '내 인생 최고의 찬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일이 너무 기다려진다.'

왜 결혼하는가?

-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을 찾다 -

조정민 저 / 두란노 / 13,000원

조정민 목사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혼은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을 알면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고 모르면 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참사랑을 배우며 진짜 어른이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러 결혼과 가정에 대한 질문에 좋은 대답을 해 주고 있다.

양심

위렌 W. 위어스버 저 / 나침반 / 7,000원

이 책은 신간은 아니지만 오늘 양심에 확인 맞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 책을 소개한다.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강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양심은 우리 행동을 지도해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주님을 증거 할 힘을 주고, 기도를 돕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해준다.

* 소개한 책은 로뎀카페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서대여는 교회 사무실에서 빌려 드립니다.